물리치료과 학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이경희, 김기원[1]
■동남보건대학 물리치료과, [1]극동정보대학 물리치료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Kyung-Hee Lee, PT, PhD; Gi-Won Kim, PT, PhD[1]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Nam health college; [1]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euk-Dong college

Purpos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Methods: We recruited 179 currently enrolled college freshman, sophomores, and juniors studying physical therapy.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Choi Chung Hoon's Perceeptual Orientation Scale, and the Mental Health Test modified by Lee.

Results: The mean self-concept score was 3.97, a positive self concept, and the mean mental health score was 1.04. The mean dimension score for mental health ranged from: r=0.79~r=1.2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r=-0.693, p<0.01).

Conclusion: Modifications to the current program may improve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Key Words: Self-concept, Mental health, Physical therapy students.

논문접수일: 2008년 7월 22일
수정접수일: 2008년 9월 12일
게재승인일: 2008년 10월 2일
교신저자: 김기원, rldnjs44@hanmail.net

본 연구는 2005년도 동남보건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Ⅰ. 서론

자아는 현상적 장의 존재이고 행동의 준거가 되는 것으로 지각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기본 변인이며(최정훈, 1983), 자아개념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정원식 등, 1990). 이것은 부모, 형제나 친구, 선생님 등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살아가는 동안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간다(송인섭, 1998; 홍준표, 1973).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인관계도 부정적이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지표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자기 속에 심고 현실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높다(권정숙, 2004). 실패와 좌절감을 건설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즉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는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전현민과 노명래, 1991).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개념은 건강이란 단지 질병에 걸리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well-being)라고 되어 있어 인간은 신체적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 존재이며 또 사회적 존재임을 함축했다(김춘자, 2000). 정신건강이란 용어는 본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한 정신 병리학적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이흥우, 1985; 정영남, 1990). 또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와 성격의 조화를 이룬 상태로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각으로 자아실현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 생활환경 속에서 정신건강은 인간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임은희, 1996).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볼 때 Erikson의 인격 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이며 Sullivan의 인격 발달 단계 상으로 볼 때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양승희, 2001). 이 시기의 특성은 여러 발달과업을 수행하여 성인기를 대비하는 시기이며 정신능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등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탐색과 자기 확립의 과정으로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유안진과 김혜선, 1996).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장, 발달을 통해 얻어진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장래직업, 인생의 목적 등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전환기로서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이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급격한 신체 변화 및 성적 성숙,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의 정체감 형성, 가치관 정립, 감정과 충동의 조절 등 여러 적응 문제에 실패하게 되면 정신건강이 더욱 위협받게 된다(김은주, 1997).

종합해 볼 때 자아개념은 정신건강에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이훈구, 1986; 정영남,1990; 정정애, 2004). 또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나 가정과의 관련성, 학업수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들이 있으며(임은희, 1996; 전현민과 노명래, 1991; 정정애, 2004) 광범위하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 외에 대상을 한정한 연구들은 간호학생이나 간호조무학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권정숙, 2004; 김춘자, 2000; 양승희, 2001). 이들을 제외하고 의료기사들에 대한 연구로는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있다(배지영, 2005; 이덕혜와 곽수진, 2001; 이선미, 2000). 물리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자아개념이나 정신건강, 전문직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방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더 나은 치료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계속해서 통증이나 기능적 소실을 호소하는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여갈 때 환자나 물리치료사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들은 긍정적 자애개념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강한 정신건강을 계속 유지 증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물리치료과 학생의 자아개념 정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물리치료과 학생이 졸업 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이 결과를 기초로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시에 위치한 대학의 물리치료과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7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17~30세 사이의 대학생으로 평균 22.24세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Type	Frequency	Percentile(%)
Sex	Men	66	36.9
	Women	113	63.1
Year	Year 1	61	34.1
	Year 2	62	34.6
	Year 3	56	31.3
Religion	Christian	61	34.1
	Catholic	19	10.6
	Buddhism	20	11.2
	Atheism	77	43.0
High School System	General System	148	82.7
	Vocational System	28	15.6
The motive of a selecti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By interest of oneself	88	49.2
	By invitation of families and friends	57	31.8
	The Others	32	17.9
Parents Occupation	Professional Job	20	11.2
	Official, Office Worker	44	24.6
	Commerce, Business	71	39.7
	Farming, Fishery	9	5.0
	Factory Worker	8	4.5
	inoccupation	3	1.7
	The Others	21	11.7

2. 연구도구

1) 자아개념 측정도구

자아개념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최정훈(1972)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지각 형성 검사도구로 개발한 인지적 자아에 관한 사항 20문항, Rosenberg에 의해 개발되어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존심 검사도구로 개발된 평가적 자아에 관한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을 심영옥(1983)이 수정 보완하여 인지적 자아에 관한 문항 10문항, 평가적 자아에 관한 문항 10문항으로 문장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20문항 중 12문항은 긍정구문, 8문항은 부정구문으로 되어 있어 긍정구문의 경우 "절대 긍정"에 5점, "절대부정"에 1점을 주었으며 부정문항의 경우 역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심영옥(1983)과 이선미(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87로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2) 정신건강 측정도구

정신건강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Parloff(1954)가 최초로 제작한 것을 Deogatis 등(1973, 1977)이 Hopkins Symptom Checi List(HSCL)를 발전시켜 만든 Symptom Checi List 90(SCL 90)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광일 등(1978)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를 이훈구(1986)가 요인분석 후 간소화시켜 제작한 47개의 문항을 만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47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47문항은 신체화 6문항, 강박증 5문항, 대인예민성 8문항, 우울 4문항, 불안 6문항, 적대감 6문항, 공포 불안 4문항, 편집증 4문항, 정신증 4문항의 9가지 증상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별로 "전혀 없다"에 0점, "매우 심하다"에 4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양승희(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95였으며, 김춘자(2000)의 연구에서 하부 요인별 신뢰도는 신체화 0.82, 강박증 0.64, 대인예민성 0.80, 우울 0.77, 불안 0.83, 적대감 0.88, 공포 불안 0.65, 편집증 0.74, 정신증 0.65로 여러 연구들에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세 집단의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Duncan's 다중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또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자아개념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을 인지적 자아개념과 평가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지적 자아개념은 평균 4.06점, 평가적 자아개념은 평균 3.87점으로 인지적 자아개념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전체 20문항의 자아개념은 3.97점이었다(Table 2).

Table 3. The statistics of Perceptual Self-concept and Appraisal Self-concept by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Type	Perceptual Self-concept				Appraisal Self-concept			
		M	SD	t or F	p	M	SD	t or F	p
Sex	Men	4.12	0.62	2.120	0.035*	4.01	0.63	2.425	0.017*
	Women	3.99	0.54			3.78	0.51		
Year	Year 1	4.01	0.60	0.481	0.619	3.80	0.57	1.255	0.288
	Year 2	4.07	0.56			3.85	0.56		
	Year 3	4.12	0.57			3.96	0.56		
Religion	Christian	4.11	0.56	0.226	0.924	3.89	0.57	0.856	0.491
	Catholic	4.10	0.57			3.82	0.56		
	Buddhism	4.05	0.56			4.07	0.50		
	Atheism	4.03	0.60			3.82	0.58		
High School System	General System	4.08	0.58	0.896	0.371	3.88	0.55	0.587	0.558
	Vocational System	3.98	0.53			3.81	0.65		
The motive of a selecti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By interest of oneself	4.09	0.55	0.386	0.681	3.90	0.54	0.760	0.469
	By invitation of families and friends	4.04	0.58			3.86	0.57		
	The Others	3.99	0.63			3.75	0.60		
Parents Occupation	Professional Job	4.09	0.65	1.559	0.162	3.95	0.67	1.358	0.234
	Official, Office Worker	4.09	0.61			3.89	0.56		
	Commerce, Business	4.05	0.56			3.86	0.56		
	Farming, Fishery	3.59	0.54			3.44	0.47		
	Factory Worker	4.41	0.36			4.13	0.38		
	inoccupation	4.10	0.85			4.07	0.74		
	The Others	4.05	0.49			3.77	0.55		

* $p<0.05$

Table 2. The scores and mean, standard deviation of self-concept

Self-concept	Number (A)	Maximum score (A×5)	Total score (B)	M (B/A)	SD
Perceptual Self-concept	10	50	40.64	4.06	0.58
Appraisal Self-concept	10	50	38.66	3.87	0.57
Total Self-concept	20	100	79.30	3.97	0.5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인지적 자아개념과 평가적 자아개념은 남자는 각각 4.12점과 4.01점이었고, 여자는 3.99점과 3.78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모두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다른 일반적 특성인 학년과 종교, 고등학교 계열, 물리치료과 입학동기, 보호자 직업에 따른 자아개념은 인지적 자아개념과 평가적 자아개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2. 정신건강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정신건강 척도를 9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점수화한 결과 정신건강 점수는 최대 평균평점 4점에 1.04였으며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울 1.29점, 강박증 1.25점, 정신증 1.16점, 편집증 1.02점, 대인예민성 1.00점, 신체화 0.99점, 불안 0.97점, 적대감 0.93점, 공포불안 0.79점 순이었다(Table 4).

Table 4. The scores and mean, standard deviation of mental health

Mental Health	Number (A)	Maximum Score (A×4)	Total Score (B)	M (B/A)	SD
Somatization	6	24	5.97	0.99	0.63
Obsessive-Compulsive	5	20	6.23	1.25	0.68
Interpersonal Sensitivity	8	32	8.04	1.00	0.71
Depression	4	16	5.15	1.29	0.79
Anxiety	6	24	5.83	0.97	0.72
Hostility	6	24	5.61	0.93	0.72
Phobic Anxiety	4	16	3.18	0.79	0.67
Paranoia	4	16	4.07	1.02	0.72
Psychoticism	4	16	4.64	1.16	0.76
Total	47	188	48.72	1.04	0.6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학년과 물리치료과 입학동기에 따른 정신건강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1,2학년보다는 3학년의 경우 정신건강이 0.88점으로 더 낮아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였고 물리치료과 입학동기는 기타 이유보다는 자신의 관심이나 가족, 친지의 권유로 인한 경우 정신건강이 양호하였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학년은 1,2학년이 같은 그룹으로 3학년은 별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으며 자신의 관심이나 주위의 권유와 같은 입학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같은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그 외 성별이나 종교, 고등학교 계열,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p>0.05$).

3.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아개념은 2개 하위영역으로 정신건강은 9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자아개념과 전체 정신건강도 함께 나타내었다.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Table 5. The statistics of mental health by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Type	Mental health			
		M	SD(DMR)	t or F	p
Sex	Men	0.95	0.71	-1.410	0.161
	Women	1.09	0.55		
Year	Year 1	1.15	0.61(B)	3.118	0.047*
	Year 2	1.07	0.65(B)		
	Year 3	0.88	0.55(A)		
Religion	Christian	0.98	0.62	0.474	0.755
	Catholic	1.17	0.57		
	Buddhism	1.10	0.61		
	Atheism	1.03	0.63		
High School System	General System	1.04	0.60	0.847	0.398
	Vocational System	0.94	0.64		
The motive of a selecti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By interest of oneself	0.94	0.62(A)	4.786	0.009*
	By invitation of families and friends	1.03	0.53(A)		
	The Others	1.33	0.65(B)		
Parents Occupation	Professional Job	1.02	0.78	1.569	0.159
	Official, Office Worker	1.03	0.62		
	Commerce, Business	1.10	0.58		
	Farming, Fishery	1.45	0.30		
	Factory Worker	0.87	0.48		
	inoccupation	0.42	0.62		
	The Others	0.91	0.63		

* $p<0.05$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Table 6. The correlations of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Somatization	Obsessive-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Phobic Anxiety	Paranoia	Psychoticism	Total Mental Health
Perceptual Self-concept	-0.494**	-0.444**	-0.602**	-0.416**	-0.576**	-0.547**	-0.519**	-0.580**	-0.544**	-0.612**
Appraisal Self-concept	-0.568**	-0.542**	-0.631**	-0.498**	-0.592**	-0.627**	-0.549**	-0.591**	-0.619**	-0.673**
Total Self-concept	-0.573**	-0.532**	-0.666**	-0.493**	-0.631**	-0.633**	-0.577**	-0.632**	-0.627**	-0.693**

**p<0.01

인지적 자아개념과 우울이 가장 낮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0.416, p<0.01) 평가적 자아개념과 대인예민성이 가장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631, p<0.01). 특히 전체 자아개념과 전체 정신건강은 가장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693, p<0.01).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시기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자기 정체감 확립과 정신적으로 건강함은 궁극적인 과제이며 이 시기의 성취에 따라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만일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직업인으로 성장한다면 정신건강은 물론 직업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개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가지는 태도이며 자아는 지각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행동의 준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전병재(1974)와 최정훈(1972)이 개발하고 번역한 문항을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지적 자아개념과 평가적 자아개념을 구분하였고 전체 대상자들의 응답결과 인지적 자아가 평가적 자아개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자아개념은 평균평점 3.97이었고 하위영역인 인지적 자아개념은 40.6점, 평가적 자아개념은 3.8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기공사의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의 관계를 연구한 이덕혜와 곽수진(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3.73점보다 약간 높았다. 치위생사의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를 관계한 연구한 이선미(2000)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이 3.89로 본 연구에서보다 약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자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물리치료과를 졸업한 물리치료사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여 비교해본다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의 물리치료과 학생들과 물리치료사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척도는 인지적 자아와 평가적 자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정원식(2003)의 표준화된 자아개념 검사지를 사용하여 100문항의 문장으로 서술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내적 자아준거체제와 외적 자아준거체제로 구분하여 하위영역을 총 8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었다(권정숙, 2004; 김춘자,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학업능력과의 관계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김용래(1995)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 110문항을 설문을 조사하였다. 하위영역은 학업자아개념 5개영역, 비학업자아개념 5개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정정애, 2004).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평가하여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김용래의 학업자아개념과 비학업자아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지적 자아와 평가적 자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평균평점 1.0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우울, 강박증, 정신증, 편집증, 대인예민성, 신체화,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의 순서로 정신건강 문제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도 거의 일치하였다(권정숙, 2004; 김춘자,2000; 양승희, 2001). 이러한 결과는 과중한 학업이나 힘든 임상실습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의 부족 등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통해 좌절과 갈등을 느끼기 때문이며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나 국가고시 등에 대한 강박관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다(양선희, 1988; 양승희,2001). 이들의 생각은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결과와는 반대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정신건강을 비교한 결과 1,2학년은 각각 1.15, 1.07로 3학년의 0.88점보다는 높아 3학년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중한 학업이나 실습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지만 본 연구의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볼 때 3학년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1, 2학년 학생들보다 높은 것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양호하

였다는 역상관관계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절한 학교 수업 및 직업교육과 지도를 수행한다면 향후 직업인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강한 정신건강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과 입학동기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었는데 본인의 관심이나 가족 친지의 권유로 물리치료과에 입학한 경우 다른 이유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자아개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F=4.786, p=0.009) 학교에 입학할 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절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양승희(2001)와 정영남(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자아개념과 평가적 자아개념, 전체 자아개념을 전체 정신건강 점수와 하위영역별 정신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r=-0.416에서 r=-0.693까지 중간정도의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전체 자아개념과 전체 정신건강의 역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양승희(2001)의 결과에서 나타난 r=-0.21～r=-0.43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을 연구한 정정애(2004)의 연구결과(r=-0.53)에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아개념 척도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여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으며 간단하게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른 연구 결과들과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권정숙, 2004).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아개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신건강의 문제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이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되었을 때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중 자아개념을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계속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물리치료사가 되었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앞으로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확대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정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은 평균 3.97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적 자아개념이 평가적 자아개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인지적 자아개념과 평가적 자아개념이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평균 1.04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었으며 9개 하위영역별로 0.79～1.29점으로 공포 불안이 가장 낮았고 우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대상자의 학년과 물리치료과 입학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5.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0.693$, $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확대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정숙. 일부 간호조무사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광일.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Ⅰ. 신경정신의학. 1978;17(4):449-58.

김은주. 간호 전문대학 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1997;40(11):68-75.

김용래. 자아개념척도의 타당화 분석. 교육연구논총. 1995;12:43-80.

김춘자. 간호조무학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1998.

배지영. 치과위생사의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치과연구, 2005;57(2):89-101.

송인섭.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1998.

심영옥. 폐결핵환자의 자아개념과 건강신념이 치료적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양선희.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최신의학. 1988;31(3):131-44.
양승희. 일부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1;10(3):376-90.
유안진, 김혜선.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6.
이덕혜, 곽수진. 치과기공사의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와의 관계 연구, 논문집동남보건대학, 2001;19(1):47-57.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자아개념과 전문직태도와의 관계 연구. 치과연구. 2000;47(2):51-62.
이훈구. 한국여고생의 심리적 성숙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1986;56:145-64.
이흥우. 교육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985;3:1-11.
임은희.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974;11:107-24.
전현민, 노명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1;10(1):114-25.
정영남.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현대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0.
정원식. 자아개념 검사법 요강. 서울, 코리아 테스팅 센터, 2003.
정정애.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최정훈. 지각성향검사 예비형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972;9:67-85.
최정훈. 지각심리학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1983.
홍준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3.
Derogatis LR, Lipman RS, Covi L.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 Bull. 1973;9(1):13-28.
Murray R, Huelskoetter MM, O'Discoll. The nursing process in later maturity. Englewood Clrffs, Prentice Hall INC, 1980.